**주(主)**



"나는 구주이기 전에 왕이었느니라.

나는 유대의 왕이요 온 민족의 왕이었느니라.

그런데 많은 자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는구나.

그들이 진정 나를 왕으로 알었더라면

어찌 나의 날을 범하며 나의 것을 도적질 하며 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며

나의 음성에 불순종하며 어떠케 자고하며 자기안에서 교만이 일어나며

어떻케 그들이 스스로 목이 곧아지겠느냐.

나의 피값은 원하나 나를 섬김은 외면하는 구나.

보혈을 알고 믿지만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를 나의 백성으로 맞이할 수 없느니라.

백성이 누구의 것이냐? 왕의 백성이 아니더냐.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찌 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

세상의 신하도 왕이 명을 내리면 자기의 목숨을 바쳐 그 명령을 수행하거늘

과연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많은 자들이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며

또 은사와 능력이 있다 한들 그것이 나와 무슨상관이냐?

그들이 나를 구주로 인정하고 나를 구주로 시인한다 한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를 저들의 왕으로 섬기고 임금으로 섬기는 나의 백성을 원하노라.

많은 자들이 정말 능력을 행하고 은사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때

그 능력과 은사가 스스로의 옷이 되어 버린다.

많이 가져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바에는

하나 가진 자가 되어 둘을 남기는 게 낫다.

반드시 열을 준 자에게는 스물을 찾으시고, 다섯을 준 자에게는 열을 찾으신다.

많은 자들이 쓰인 줄 알았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조심하라.

잠시잠깐 섬기는 일에 쓰라고 맡긴 나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성을 만들고 자기나라의 임금이 되어 있는 자가 어찌 내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

나는 임금을 원하지 않고 백성을 원한다.

나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을 가증스러워 한다.

그들이 나를 진정 왕으로 알았더라면 반드시 목숨 바쳐 반드시 행함이 있었으리라"

Tags

왕과 구주

회개 청종 믿음 의심 내주